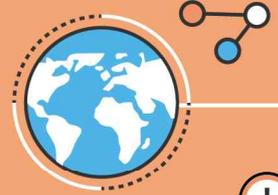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전력, 중국】 중국 중·남부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 공급 차질, 생산 중단 잇따라

【원유, 미국】 美 러시아 석유 대체를 위해 내년부터 기록적 석유 증산 전망

【경제, 중국】 中 경제성장 둔화에 기준금리 인하,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로 하향 조정

【에너지, 유럽】 러시아 유럽 가스공급 중단, 에너지 위기發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면화, 미국】 미국 남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면화 수확량 급감 전망, 가격 상승세 지속

【가스, 일본】 일본, 러 '사할린-2' LNG 구매 재계약

【가스, 독일】 독일, 가계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19%→7%로 한시적 감경



GVC 뉴스 더하기

- ① 호주 내수용 LNG 부족 가능성 및 한국에의 영향
- ② 반도체 민관 투자 확대에도 업스트림 공급망 병목 지속



GVC 기초상식

선박과 해상운임지수 1편 - 선박의 종류



GVC 돌보기

국제 식량 공급망



GVC 전문가

'최근 對中 무역수지 적자 진단'
- 홍지상, 조의윤(국제무역통상연구원)



특별기고(전략물자관리원)

국제수출통제체제 최근 동향



GVC 소식통

- ① 라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안내
- ③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소식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전력, 중국] 중국 중·남부지방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공급 차질, 생산중단 잇따라

- 중국 정부는 6월부터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이 지속되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서부[쓰촨충칭, 중부[우한창사], 화동[장쑤안후이저장성]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강제적 전력제한 조치 시행 및 자발적 절감 독려
 - 서부 지역은 고강도 대응 중 → 쓰촨성은 계획정전 시행에 따른 생산중단 등 조치가 당초 8.15~20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력난 해소의 어려움으로 25일까지 기한연장. 충칭시는 제한적 전력공급 시행
 - 중·동부 지역은 저강도 대응 중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 전력공급 시행[장쑤, 후베이] 및 자발적 절전 참여 통지[저장·안후이·후난]
- 쓰촨성은 전력의 약 80%를 수력발전으로 확보하는데 폭염으로 강과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수력발전이 어려워짐. 쓰촨성 수력발전소는 발전량의 1/3을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등 7개 성급 지역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국적 피해로 번지고 있는 상황
 - [쓰촨성(청두)] 최고 40도 이상의 날씨가 65일 이상 지속(8.17일 기준), 1961년 이후 최악의 폭염 기록 중
 - [충칭시] 베이베이구 8.18일 45도 기록, 강수량이 예년 대비 60% 이상 감소
- 중국 정부는 7월 한 달 고온·폭염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만 23억3,000만 위안(약 4,500억 원)에 달하며, 550만 명이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 중국기상청은 8.26일 경부터 폭염이 누그러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우 예정이라 밝히 조만간 정상화가 예상됨
- 미국 컨설팅사 엘릭스파트너스의 스키 토모유키 매니징 디렉터는 '지속된 공급망 혼란으로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재고 보유 등이 이미 이뤄져 있어 도시 봉쇄와 달리 일주일 정도의 생산 중단은 큰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밝힘
 - 도요타, 폭크스바겐, CATL 등 자동차·배터리 제조사 생산 중단, BOE(패널) 등 기업은 자가 발전으로 일부 가동 중
 - 쓰촨성에 진출한 우리 제조기업은 약 15개사로, 제한적 전력공급 상황에 따라 공장운영 중지, 특정 시간대만 운영하거나 일반 관리업무만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 중.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폭염 및 수력발전 차질 지속시 진출기업 및 공급망 영향 불가피

출처 : 조선비즈(22.8.22), 머니투데이(22.8.22), 일본경제신문(22.8.19) 언론보도 및 KOTRA 청두무역관 종합

● [원유, 미국] 美 러시아 석유 대체를 위해 내년부터 기록적 석유 증산 전망

- 미국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으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8.21일 폭스뉴스에서 내년부터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가며 하루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역대 미국의 1일 원유 최고 생산량은 '19년 1,220만 배럴)
 - 7월 영국 에너지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발표한 2022 세계 에너지 전략 리뷰' 보고서에 의하면, '21년 원유 및 석유 부산물을 포함한 미국의 산유량은 일평균 1,120만 배럴로 세계 1위(시장점유율 14.4%), 2위는 일평균 1,050만 배럴을 생산한 러시아(시장점유율 13.4%), 3위는 940만 배럴의 사우디
 - 그랜홈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석유의 손실분을 벌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백만 배럴의 생산을 사라지게 했다'고 지적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를 방문해 석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오히려 증산 속도를 대폭 줄인 바 있음. 이에 외신들은 사우디가 러-우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
 -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는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총 1억8천만 배럴의 전략비축유(SPR)를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했었으며, 오는 9~10월에는 시장에 2천만 배럴을 추가 방출할 계획으로 알려짐

출처 : 연합뉴스(22.8.22), 파이낸셜뉴스(22.8.22) 등 언론보도 종합

● **【경제, 중국】 中 경제성장 둔화에 기준금리 인하,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로 하향 조정**

- 중국의 7월 소매판매와 투자, 부동산 등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올 가을 3연임 결정을 앞둔 시진핑 주석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
 - 중국의 7월 16~24세 청년실업률은 19.9%로 同 통계 발표를 시작한 '18년 이래 최고치 기록. 전체 실업률은 5.4%로 전월 5.5% 대비 소폭 낮아짐 [중국 국가통계국]
 -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해 시장 전망치인 5% 크게 하회. GDP 선행지표인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해 역시 시장 전망치인 4.6%에 미치지 못함
- 이에 8.1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두 가지 주요 시중금리인 MLF(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와 RP(7일 만기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각각 0.1%p 인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로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앞다퉈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
 - 약 4,000억 위안(77조3,400억원) 규모의 MLF 금리 연 2.85 → 2.75%, RP 금리 2.1 → 2.0%로 인하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금리인하가 코로나19 변이로 일상생활조차 막힌 개인과 기업의 대출을 촉진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중국의 성장 둔화는 이미 러-우 사태와 미국,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긴축에 타격을 받은 글로벌 경제에 역풍을 더한다고 평가. 글로벌 IB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는 '22년 중국의 GDP를 추가로 하향 조정
 - ('2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골드만삭스 3.3 → 3.0%, 노무라 3.3% → 2.8%로 하향 조정

출처 : 뉴시스(22.8.16), WSJ(22.8.15) 등 언론보도 종합

● **【에너지, 유럽】 러시아 유럽 가스공급 중단, 에너지 위기發 경기침체 우려 확산**

- 러시아 국영석유업체 '가즈프롬'은 유럽 向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 1' 시설 정비를 위해 8.31일부터 3일간 가동 중단 결정. 가즈프롬은 유지 보수가 완료되면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밝혔지만,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 우려와 유럽 혹서 등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가 한층 고조되며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였던 지난 3.7일(300유로) 이후 역대 최고치 기록*
 - * 9월 인도분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장중 1메가와트시(MWh)당 295유로까지 치솟아 작년 8월 23일 26.78유로 대비 10배 이상 상승
- 최근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을 통한 유럽행 가스공급을 80% 줄인 이후 EU는 겨울 난방을 위해 최대한 가스를 아껴 저장해둘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저장시설의 11.1일 목표치인 80%를 하회하는 75%를 달성한 상황에서 기록적인 고온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는 중
 -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과 아시아 북부가 제한적 LNG 선박을 대상으로 공급확보 경쟁까지 나서며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설명
-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가스공급 중단이 계속되면 러시아산 가스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유럽의 에너지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확산. 또한, 에너지 위기發 유럽 경기침체 우려로 "1유로-1달러" 패리티가 깨지며 유로화 가치가 20여년만에 최저치 경신
 -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뱅크는 독일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올 가을 물가 상승률이 10% 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 씨티뱅크는 에너지 가격 급등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년 1월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18.6%로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은 197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화 환율은 8.22일 0.9932달러/유로에 장을 마친데 이어, 8.23일에도 장중 0.9915 달러/유로까지 추가 하락하여 '02년 11월 이후 최저치 경신
-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집약 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음. 아연생산업체 '나르스타'는 평년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전기 비용부담을 아연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기 어려워 8월부터 네덜란드 제련시설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라 밝힘. 독일 바스프는 가스 공급 부족으로 지난달 암모니아 생산을 줄였으며, 내년에는 암모니아를 원료로 쓰는 비료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출처 : 뉴스원(22.8.17), WSJ(22.8.16), 이데일리(22.8.20), 매일경제(22.8.24) 등 언론보도 종합

● **【면화, 미국】 미국 남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면화 수확량 급감 전망, 가격 상승세 지속**

- 미국은 역대 세 번째로 더운 7월을 기록하며 서부와 남부·중부 평원지대의 60% 가량이 심각한 가뭄 상태인 것으로 추정. 이에 농민들이 지난 봄 파종한 면화 재배를 포기한 면적은 남서부 지역 전체 파종면적 50,586km²(1,250만 에이커)의 40%를 넘어서고 있음
 - 미국 최대 면화 생산지인 텍사스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432~457mm이나 '21.8월 이후 내린 비는 약 76mm에 불과, 금년 면화 생산량은 1986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
 - 美 농무부는 올해 수확 가능한 재배 면적은 남북전쟁 직후인 '재건 시대' 이후 최저를 기록하여 올해 면화 생산량이 '09년 이후 가장 적은 1,026만 배일(1배일 = 약 225kg)로 지난해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면화 가격은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 5월 초 파운드당 1.50달러를 넘어섰으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급락했다가 최근 또다시 급등세
 - 12월물 면화 선물가격은 8.16일 파운드당 1.169달러에 거래 마감하여 6거래일 연속 상승(면화 선물 역대 최고가는 파운드당 2.141달러). 현재 선물가격은 8월 둘째주에만 13% 급등하며 '11.3월 이후 주간 상승률 최고치 기록
- 가뭄의 여파는 면화뿐만 아니라 경작·목축업 포기 등으로도 나타나 소비자들의 식료품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최근 고유가, 비료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에게 가뭄과 폭염은 큰 부담인 상황

출처 : 연합뉴스(22.8.17) 등

● **【가스, 일본】 일본, 러 '사할린-2' LNG 구매 재계약**

- 러시아가 극동 에너지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 운영자를 교체한 가운데, 일부 일본기업(JERA, 도쿄가스)이 사할린-2의 새로운 운영회사와 LNG 구매계약 체결 확정(계약조건은 기존과 동일)
 - 그동안 사할린-2는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 영국·네덜란드 합작사 셸, 일본 미쓰이물산, 미쓰비시 상사가 출자한 기업이 운영
 - 러-우 전쟁으로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자, 러시아는 사할린-2의 운영권을 새로운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한 신규회사(사할린에너지LLC)에 이전(8.5)
- 사할린에너지LLC는 기존 일본 출자기업 측에 출자 지속 여부를 다음 달 4일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사할린-2 사업 참가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현재 자국기업들에게 프로젝트 출자에 참가하는 것을 권고하는 중
 - 현재 사할린-2에서 생산되는 LNG의 약 60%는 일본으로 수출 중으로 일본이 주요 수요처 역할
→ '21년 기준 일본은 LNG 수입의 8.8%를 러시아에 의존했으며 대부분이 사할린-2 프로젝트 생산 물량

출처 : 매일경제,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언론사 종합(22.8.20)

● **【가스, 독일】 독일, 가계 등 부담 완화 위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19% → 7%로 한시적 감경**

- 독일 정부는 가스 추가 부담금 도입 등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감경하는 계획 발표
 - 당초 정부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고려했으나, EU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EU 집행위와 협의 후 가스 부가가치세를 일시 감경하는 방향으로 전환
 - 이번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경은 가스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는 '24년 3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
- 한편,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감경 조치만으로 현재 당면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우며 정치·경제적으로 핵심을 벗어난 조치라며 비판적 입장 제기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8.20)



GVC 뉴스 더하기 ① : 호주 내수용 LNG 부족 가능성 및 한국에의 영향

※ 호주 정부의 내수용 LNG 물량 확보를 위한 '호주 내 가스 안정 메커니즘(ADGSM)' 발동 가능성 (인사이트 23호 해외이슈 참고)이 제기되고 있는 바, LNG를 둘러싼 호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확인해보자

● 호주 ADGSM 발동 검토 동향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3년 호주 내 천연가스 공급량이 56페타줄(약 20만 5,000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 이는 전체 수요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임
- ACCC는 국제 가스가격 급등으로 호주 가스업체들이 장기계약 건 이외의 추가 생산분을 수출하고 있다며, 우선 내수용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에 '호주 내 가스 안정 메커니즘(ADGSM)' 권고
 - * ADGSM은 호주 정부가 '17년 도입한 LNG 수출업체들이 가스를 내수용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 호주는 한국의 최대 LNG 수입국

- 한·중·일은 호주의 주요 LNG 수출국으로 한국은 호주 LNG 수출의 12% 비중 차지(21)
 - 중국(20%), 일본(19%), 한국(12%) 順
- '22년 상반기 기준 호주는 한국의 LNG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 최근 6년(16~21) 한국의 LNG 최대 수입국은 카타르, 호주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물량/금액 수입

〈최근 10년 한국의 對호주 LNG 수입 동향〉

연도	수입			
	금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중량 (천 톤)	증감률 (%)
2022(1~6월)	6,068	203.8	5,661	37.0
2021	5,763	90.5	9,465	18.7
2020	3,025	-19.1	7,972	2.5
2019	3,739	-12.0	7,775	-1.2
2018	4,250	46.0	7,871	12.5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 5년 한국의 LNG 주요 수입국〉 (금액 : 백만 달러, 중량 : 천 톤)

국가	2022(1~6월)		2021		2020		2019		2018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호주	6,068	5,661	5,763	9,465	3,025	7,972	3,739	7,775	4,250	7,871
카타르	3,631	4,990	6,229	11,464	4,131	9,087	6,783	11,311	7,917	14,245
미국	2,508	2,722	4,816	8,478	2,095	5,762	2,180	5,226	2,249	4,658
오만	2,315	2,533	2,276	4,415	1,779	3,900	2,457	3,946	2,506	4,282
말련	2,242	2,586	1,746	3,906	1,682	4,918	2,094	4,802	1,757	3,70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기업의 호주 LNG 사업 투자도 활발

- (포스코인터내셔널) '22.4월 호주 가스 및 석유제품 생산기업 세빅스에너지 인수, 8월초에는 호주 퀸즐랜드 지역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10억 호주달러(약 9,223억 원) 투자 계획 발표
 - 세빅스에너지의 가스전 2개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을 '25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수립('22.6)
- (SK E&S) '21.3월 호주 바로사-갈디따 해상가스전에 투자하여 매장량 7,000만 톤 이상의 LNG 생산 본격 착수. '25년부터 20년에 걸쳐 연간 130만 톤 규모의 LNG를 국내로 도입할 예정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ADGSM이 실제 수출 규제로 이어진 전례는 없으며, 수출규제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기업들과 협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
 - 제재가 이루어져도 이는 잉여분에 대한 제재이기에 한국, 일본과 같은 기존 장기계약 국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나, 한국, 일본은 대량 수입 국가이므로 가격인상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존재
- 한편, 8.22일 양국은 한-호주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LNG 관련 상호호혜적 투자 및 교역을 지속해 갈 것을 재확인 한 바, 양국간 자원외교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GVC 뉴스 더하기 ② : 반도체 민간 투자 확대에도 업스트림 공급망 병목 지속

※ 최근 주요국들은 반도체 위기 해소를 위해 투자 촉진 제도를 갖추고 온쇼어링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원재료·소재 등 업스트림 공급망 병목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독립된 공급망 구축이 어려운 반도체 산업의 특성 등 관련 쟁점을 살펴보자

●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

- 최근 전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약 6,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 '20~'24년 약 91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이 운영될 것으로 예측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 주요 기업의 해외 투자도 일부 포함 - (TSMC) 미국, 일본 / (인텔) 유럽, 동남아 / (삼성) 미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요 투자 계획	
TS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까지 대만, 미국 중심 1,000억 달러 • 일본 신규 공장 70억 달러
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아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지역 1,200억 달러 • (EU)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 (이탈리아) 50억 달러 규모 패키징·조립 설비투자 임박[이탈리아 정부가 투자액의 40% 지원 예정] * 최종 입지 후보로 북부의 피에몬테, 베네토 지역이 거론되는 중 • (동남아)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의 반도체 포장·시험 공장 70억 달러 및 4.7억 달러 • (이스라엘) 타워 세미컨덕터社 인수, 제조 공장 100억 달러, R&D 확대 6억 달러
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메모리반도체 확대 1,511억 달러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170억 달러 포함) • 텍사스 반도체 공장 약 2,000억 달러
마이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본, 대만 제조 확대 1,500억 달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사스 신규 공장 설립 31억 달러 • 마이크론 공장 인수 9억 달러 • '25년 제조 목표 텍사스 공장 신규 설립 300억 달러

(자료) 닛케이아시아, 로이터 등

● 주요국 정부 대규모 투자 지원

-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와 러-우 전쟁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들도 지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총 1,000억 달러 규모 지원 발표

- (차량용 반도체) '21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제조 770만대 감소. 美 상무부는 '21년 GDP 약 2,400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러-우 전쟁) 에너지, 원자재, 화학물질 등 주요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며 공급망 안보에 대한 필요성과 위기의식 증대

구분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0억 달러 연방 투자 및 투자 세액 공제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0억 달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2억 달러, 설립비용 최대 50% 보조금 (TSMC 공장 건설에 약 35억 달러 지원 예정)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및 기술 공급망에 300억 달러, 프로젝트 비용 최대 50% 지원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07억 달러, 2차 304.7억 달러 및 과세 우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투자 최대 50% 세액 공제, 제조 투자 20% 세액 공제, 민간투자 '30년까지 4,500억 원 유치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세액 공제, R&D 세액 공제 15%, 토지, 수자원 및 전력 확보 지원

(자료) 닛케이아시아

● 반도체 투자에 대한 평가

-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독립된 공급망 구축 및 안정적 공급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주요 국가권역의 온쇼어링 정책은 반도체 공급망의 끝단인 '반도체 칩' 생산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많은 원자재·부품·화학물질·가스 및 금속 포함 장비 등 광범위한 관련 품목의 온쇼어링은 쉽지 않은 상황
 - 업스트림 품목은 제조 공정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적합한 공급기업 또한 제한적**. TSMC의 공급업체 경영진은 현재 납품되는 밸브, 파이프, 펌프, 튜브 등은 약 1년 전부터 주문된 부품들이며 **남은 재고량이 부족하다며 우려**
 - * <예시> 주요 장비 중 '고순도 가스 실린더 밸브'만 해도 록셈부르크의 Rotarex, 일본의 BBB Neriki Valve, Hamai Industries 등 소수의 회사만이 반도체 산업용 제품 공급이 가능. 누출 및 폭발 위험 때문에 광범위한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만큼 Rotarex의 시장 점유율은 약 80%. 인증기준 충족에만 10~2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 기업으로 공급처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
- 설계 도구, 제조, 패키징, 재료 및 장비 등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특정 품목이 개별 국가·권역에 65% 이상 집중된 병목 지점이 최소 50개 존재** → **업스트림 공급망 병목이 연쇄적으로 작용해 공급난 해소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음**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주요 반도체 부품·자재·장비별 리드타임>

구분	부품·자재/기계명	공급사	리드 타임(월)
부품·자재	정밀 볼나사	THK, Bosch, Rexroth, Hiwin	12~14
	광학 시스템	ZEISS	12~15
	밸브(주로 가스 조절용)	AP Tech, Fujikin, Swagelok	10~13
	웨이퍼 취급, 이동 로봇	Roeze, Hirata, Brooks, Genmark, TDK	10~12
	고순도 가스 실린더 밸브	Rotarex, BBB Neriki, Namai Industries	8~10
	센서	Omron, Mitsubishi	8~10
	컨트롤러 모듈	Siemens, Fanuc, Heidenhain	8~9
	실린더	SMC, CKD	4~7
주요 기계	반도체 제조 노광장비	ASML, Canon, Nikon	18~24
	기판 노광장비	Ushio, Orbotech	18~19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CMP)	Applied Materials, Ebara	12~18
	물리적, 화학적 기상증착(PVD, CVD)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Tokyo Electron	12~18
	에칭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Tokyo Electron	12~18
	반도체 계측, 웨이퍼 검사기	KLA, Applied Materials	12~18
	웨이퍼 습식 화학 세정	SCREEN, Semiconductor Solutions, Lam Research, Tokyo Electron	12~18
	웨이퍼 연마 및 연삭	Disco	12~15
	레이저 드릴링	Mitsubishi	12~13
	테스트	Advantest, Teradyne	12~13
자동화 자재 처리 시스템	Murata Machinery, Daifuku	10~12	

(자료) 닛케이아시아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권역에서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반도체 칩 100% 생산 자립'은 **쉽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
 - 또한, 다양한 국가·권역에서 반도체칩 생산시설을 구축할 경우 수학적으로 글로벌 수요 이상의 공급이 이뤄질 우려가 크며, 대부분 보조금 확보 가능한 경우에만 건설될 것이기에 **비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증대**
-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무역장벽이 확산되고 있는** 現 시점에서,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맹국 및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
 - BCG의 반도체 책임자 JT Hsu는 '반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권역·국가가 만드는, 100% 자립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반도체 업계는 충격 흡수를 위한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



GVC 기초 상식: 선박과 운임지수 1편 - 선박의 종류

※ 선박을 이용한 물류는 전체 글로벌 무역의 85%,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동량의 99.7%(9억5500만톤)를 차지함. 글로벌 무역의 주요 운송수단인 선박의 종류와 주요 용어, 해상운임지수 등에 대해 알아보자

〈선박과 운임지수〉

25호: 선박의 종류
26호: 선박 용어
27호: 해상운임지수

● 선박의 중요성

- 선박은 한 번에 12만 ~ 35만 톤 운송이 가능한 글로벌 무역의 핵심 운송수단으로 전체 선대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상선 비중은 약 90%, 국내 조선사들은 상선을 주로 건조('22.5, Clarkson)

*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항공기 안토노프 AN-225는 한 번에 250 톤 운송 가능

● 선박의 분류

- 선박을 용도에 따라 크게 상선(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 가스선)과 상선 외 선박으로 분류

- 선박 규모가 크고 고난이도 기술(LNG운반선의 극저온 기술 등이 적용될수록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분류되며, 최근 IMO(국제해사기구)의 대기환경 규제강화*에 따라 선박 연료별 분류도 중요해지는 추세

• 황산화물(SOx) 배출기준 3.5% → 0.5%(20),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80% 저감(16) 등

〈선박의 용도별 분류〉

구분	용도	
상선	벌커	▶ 곡물, 광석 등 포장하지 않은 고체물 운반
	컨테이너선	▶ 완제품을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넣어 운반
	탱커(유조선)	▶ 원유, 석유, 화학제품 등 액체 화물 운반
	가스선	▶ LNG·LPG 등을 저온으로 냉각·액화하여 운반
여객선	크루즈	▶ 선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객 운송
	특수목적선	▶ 잠수함, 수상함, 항공모함 등 방위산업 분야 선박
	해양플랜트	▶ 해저 원유·가스를 시추·생산하는 플랜트

● 선박의 종류

① 벌커 (벌크선, Bulk Carrier)

- 포장하지 않은 벌크화물(곡물, 광석 등)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전용선

- 보통의 선박은 화물이 짓눌리지 않도록 화물 사이를 중갑판으로 막지만, 벌크선은 선창(선박 내 화물창고)이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다른 선박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여 운송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

② 컨테이너선 (Container ship)

- 규격화된 20ft 컨테이너(길이 5.90m × 폭 2.35m × 높이 2.39m)에 포장된 화물을 싣는 천장이 없는 화물선

- 하역 시간 단축 및 하역 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어 운송하는 산업 전반적 추세에 따라 발전된 선박 형태로 짧은 정박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음

* 벌크화물과 유류 등도 컨테이너 규격에 맞출 경우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컨테이너선을 통해 운송 가능

③ 탱커 (유조선, Tanker ship)

- 원유, 석유, 화학제품 등 액체 화물을 드럼 등의 용기에 넣지 않고 선창 내에 직접 산적하여 대량 수송하는 화물선

* 원유 30만 톤(200만 배럴, 약 1억불 정도의 원유)을 한 번에 운송 가능 → 한 번의 무역으로 큰 수입 발생

- 유류 등의 선창 내 유동으로 인한 선박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최대한 바다 밑으로 가리얏히고 운항

④ 가스선 (가스운반선, Gas Carrier)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등을 구(Sphere) 모양의 탱크에 선적 및 수송하는 화물선

- 가스선은 탱커에 속하지만 폭발사고 위험이 있으며 미국에서 서유럽으로의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따로 가스선, LNG선으로 칭하기도 함

〈주요 선박의 종류〉

구 분		운반제품	사 진
상선	탱커 선내에 대형의 탱크를 설치한 액체수송 선박	원유운반선 (유조선, Crude oil Tanker)	원유  VLCC(Very Largy Crude oil Carrier) : 초대형 원유 운반선(17.5만 ~ 30만 DWT) * 참고 : ULCC, MR 탱커, LR 탱커, 수에즈, 아프라, etc.
		석유제품운반선 (Product Carrier)	휘발유·경유·중유·납사
		화학제품운반선 (Chemical Carrier)	알콜·에칠·무기산·유기산
		가스운반선 (Gas Carrier)	LNG·LPG 
	건화물선 고체수송 선박	벌크선 (Bulk Carrier)	석탄·철광석 곡물·목재 시멘트 등 
		일반화물선	컨테이너 외 포장화물
		컨테이너선	컨테이너박스 
자동차운반선		차량	
	냉동선	냉장·냉동화물	
상선 外 선박	특수선	방산·여객선(Cruise ship), Ferry	
	어선	Catcher boat, Factory Ship	

GVC 돋보기 : 국제 식량 공급망

※ 집 앞 마트에서,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과자와 필리핀산 바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식량 공급망'이 위협에 처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에서 안전한지 살펴보자

〈식량 시리즈〉

24호: 식량 안보와 식량보호주의
25호: 국제 식량 공급망
26호: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구조

● 공급망 체계

- 글로벌 식량 공급망은 원료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사슬**로 얽혀 있으며, **식량 생산·수출국은 인력·자원을 투입해 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1차적으로 가공한 후 해외에 판매**
 - (생산) 식량 원자재는 품목별로 토질·온도·강수량 등 제한 요건으로 인해 한정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성
 - (가공) 곡물 등 1차산물은 저장·판매를 위해 세척과 가공을 거쳐 등급 인증을 부여받음
 - (유통) 도매 거래가 주를 이루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패하여 판매 기한과 방식이 제한적



*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에서 발췌 및 수정

● 공급망 특성

- 식량은 품목별 생산 제한 요건이 강하고 기후·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생산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공급가격 등 시장 변동성이 큼**
- 농산품(agricultural commodity)은 품목이 동일하고 특정 등급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지, 공급자와 무관하게 동일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특성이 있음
- 식량은 수직적 밸류체인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공급망의 특정 부분에 특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인도네시아 등은 생산, 일본·한국 등은 수입·가공에 특화**

* 수직적 통합 : 원자재의 생산부터 최종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 단계를 한 기업 또는 국가가 담당하는 전략

** 우리나라는 원료 곡물의 80% 가량을 수입하고, 이를 식품과 사료로 가공·소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구조

〈세계 식량 품목별 수출국 순위 및 비중(2020)〉

(단위: %)

소맥		옥수수		팥유		대두유		
1	러시아	17.7	미국	26.1	인도네시아	53.6	아르헨티나	37.5
2	미국	14.1	아르헨티나	16.5	말레이시아	30.3	미국	9.8
3	캐나다	14.1	브라질	15.9	네덜란드	3.3	브라질	7.6
4	프랑스	10.1	우크라이나	13.3	과테말라	1.4	네덜란드	4.6
5	우크라이나	8.0	프랑스	4.7	파푸아뉴기니	1.3	러시아	4.4

* 주 : 수출액 기준 / 자료 : FAOSTAT



GVC 전문가 : 최근 對中 무역수지 적자 진단 - 홍지상, 조의운(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1992년 韓-中 수교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對中 무역수지 동향과 주요 적자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 2022년 상반기 對中 무역수지 동향

- 우리나라 對中 무역수지는 5월(△11억 달러), 6월(△12억 달러)에 이어 7월(△6억 달러)에도 적자 지속 중
 - 올해 상반기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對中 10대 흑자적자 품목 중 대부분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적자 품목 개수 비중도 증가

● 對中 무역수지 적자 원인

- 최근 對中 무역적자는 △중국 경기둔화, △수입공급망 편중, △수출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경기 변동) 코로나19 봉쇄 여파 등으로 올해 2분기 중국 경제가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치면서, 2분기 이후 중국의 4대 수입국(대만·한국·일본·미국) 수입도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
 - (수입 공급망)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 수입이 404% 급증했으며, 수산화리튬의 對중국 수입의존도가 83%에 달하면서 對中 무역적자 악화에 크게 영향
 - (수출 부진) 반도체장비(중국의 자급률 상승)·LCD(국내 생산 축소)·자동차부품(중국의 한국차 수요 감소)·석유제품(중국의 수입소비세 부과)·화장품(귀차오 열풍 확산) 수출 부진도 對中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 요인 및 시사점(요약)〉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전기 대비 %)

구분	항목	'22.1 주요 지표 (1Q→2Q)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 요인 및 시사점
경기변동 요인	中경제성장률	'22.1분기 4.8% → 2분기 0.4%	◆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여파 및 경제성장 둔화(내수 부진) → 상반기 중국의 4대 수입국(대만·韓·日·美) 수입 모두 감소
수입 공급망 요인	수산화리튬 (2차전지용)	對中 수입 +404% (133% → 676%)	◆ 전기차 보급 본격 확대로 국내 수산화리튬 수입 수요 급등 → 수산화리튬 수입선 다변화 절실(對中의존도 83.4%)
수출부진 요인 (업종별)	반도체 제조용장비	對中 수출 -52% (-46% → -58%)	◆ 중국의 장비 국산화를 작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상승 → 상반기 중국의 對세계 장비 수입 10% 감소(韓점유율 2.2%p 하락)
	LCD	對中 수출 -3% (9% → -14%)	◆ 국내기업 S사의 LCD 사업부 철수(22.5) + 국내 LCD 수요는 중국·대만 수입으로 대체 → 중국의 LCD 가격 주도 우려 확대
	자동차부품	對中 수출 -23.5% (-11% → -36%)	◆ 상반기 국산차 중국 현지생산 43% 감소 + 전기차 보급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 부품 기업들의 증장기 수출 환경 악화
	석유제품	對中 수출 -48% (-44% → -52%)	◆ 중국의 경순환유 수입소비세 부과(21.6) → 정유공장이 폐쇄된 호주와 동남아로 국내 정유사의 수출선 전환
	화장품	對中 수출 -21% (-29% → -13%)	◆ 중국의 애국소비(귀차오) 열풍 확산 → 기초화장품 중심으로 對中 화장품 수출 급감 → 한류를 보완하는 맞춤형 수출전략 필요

* 주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나머지는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對中 무역흑자 유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①차세대 핵심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국산화, ②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 ③수출선 다변화 및 현지 맞춤형 수출마케팅 강화 등이 필수적
 -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 현상은 거시경제 및 한·중 산업 구조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對中 수출 정책지원 확대 필요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특별기고(전략물자관리원)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최근 동향

※ 미·소 냉전이 종식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세계는 약 30년간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 美-中 기술패권 경쟁, 對러 제재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출통제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음.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변화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자

- (주요 변화) 과거 냉전시대에는 진영간 수출통제를 통해 공산권 국가에 대한 전략적 물품과 기술이전 차단에 집중하였으나, 소련 붕괴 이후 테러단체 등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체계로 전환
 - 1949년 미국, 영국 등 서방국을 중심으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가 설립되어 공산권 국가에 대한 전략 물자 및 기술의 제공 통제
 - 1991년 舊 소련이 붕괴되고 1994년 COCOM이 해체되면서 1996년 이중용도 및 재래식 무기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가 설립되어 수출통제는 우려단체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
 - 현재 바세나르체제(WA) 외에도 분야별로 NSG, AG, MTCR 등 4대 수출통제체제가 설립(표 참고)

〈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핵공급국그룹 NSG(Nuclear Suppliers Group)	호주그룹 AG(Australia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Group)	바세나르체제 WA(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 전용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	화학 및 생물물질 및 관련 이중용도 설비와 기술	미사일 체계 완성품 (300kg/500km 이상),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생산설비 관련 이중용도 품목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48개 참여국	43개 참여국	35개 회원국	42개 회원국

- (최근 동향) 과거 냉전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혜택을 향유해 온 세계는 美-中 기술패권 경쟁, COVID-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각국의 對러 제재 등으로 인해 공급망 교란을 경험하고 있음
 -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 제정(18) 및 중국 화웨이社를 대상으로 수출통제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19), 주요국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對러 수출통제에 공조하면서 수출통제와 공급망이 강하게 연계되기 시작(22)
 -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공급망 교란에 더하여, 각국은 최근 강화된 수출통제 및 제재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대응하기 시작
- (최근 주요 특징) 최근의 수출통제는 ①“기술”을 중심으로 수출통제와 투자심사간 상호연계가 강화되고, 과거 COCOM과 유사하게 ②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통제가 등장하고 있음. 또한, ③국가안보 외에도 인권탄압, 부패, 사이버안보 등 제재의 근거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 ① (기술 중심 수출통제) 미국은 '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과 「외국인투자심사 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 ECRA가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신형기반기술을 식별하면 FIRRMA를 통해 동 기술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함
 - 통제대상 기술과 관련될 경우 비지배적 투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의무화
 - '19년부터 중국 화웨이社를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리스트인 Entity List에 등재하고, '20년에는 외산 직접제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통해 미국산 기술과 장비가 사용된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적용하여 화웨이社의 반도체 조달을 전세계적으로 차단
 - * 미국에 제조기반이 없어서 외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도 미국산 기술이 사용되기만 하면 美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이 됨

- ② (특정국 대상 수출통제) COCOM 해체 후 일부 테러지원, 핵확산 등 사유로 인한 우려국가를 제외하고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전면적 수출통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 러시아를 대상으로 소위 유사입장국 (Like-minded Countries) 간에 수출통제를 공조하면서 특정국 대상 수출통제가 등장하는 계기가 됨
- ③ (수출통제의 근거 확대) 최근 국가안보 사유 외에도 인권탄압, 부패 등이 수출통제 및 제재의 발동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을 필두로 하여 각국은 인권 사유의 수출통제 및 제재 법령을 도입하고 있음
 - GATT/WTO 협정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21조에 따라 개별국가의 안보 사유로 인한 무역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타국의 인권탄압이나 부패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라며 인권이나 부패도 안보사유로 편입시킴
 - '21.6월 EU는 「EU 수출통제법」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이버감시 품목에 대해 캐치올¹⁾ 수출통제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21.10월 미국 상무부는 사이버보안 품목을 신규 통제하는 규칙안을 발표
 - '21.12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4개국은 “수출통제 및 인권 이니셔티브”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인권탄압에 사용되는 기술을 수출통제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함

〈 인권 및 부패를 명분으로 하는 각국의 제재 도입 동향 〉

국가	분야	'12	...	'16	'17	'18	'19	'20	'21	관련법(제정일)			
미국	인권·부패	→								마그니츠키법 (2012.12.14.)			
		→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2016.12.23.)			
	→								E.O. 13818호 (2017.12.20.)				
	부패								→	미국-북부 삼각지대 간 강화된 관여법 (2020.12.22.)			
EU	인권								→	글로벌 인권 제재 규정 (2020.12.7.)			
영국	인권								→	글로벌 인권 제재 규정 (2020.7.6.)			
	부패								→	글로벌 반부패 제재 규정 (2021.4.26.)			
캐나다	인권·부패				→								마그니츠키법 (2017.10.18.)
에스토니아	인권			→								마그니츠키법 (2016.12.8.)	
호주	인권·부패								→	독자제재법 개정('21.12.7.)			
뉴질랜드	미도입									'17년에 독자제재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20년 폐기된 후 '21.7.1. 재상정 ²⁾ , '21.9.22. 부결			
일본	미도입									논의 중			

- (국제수출통제의 최근 이슈) 기존 4대 다자간 수출통제가 재검토되고, “기술” 및 “가치 공유” 또는 “유사입장 (like-minded)”을 축으로 하여 새로운 수출통제 협의체가 논의되는 것이 관찰됨
 - 기존 4대 체제는 회원국 만장일치제이므로 의사결정이 느리고 일부 회원국이 휘방(disruptive membership)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 → 최근 3개 다자간체제(WA, NSG, MTCR) 회원국인 러시아가 다른 회원국인 우크라이나(4개 다자간체제 모두 회원국)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 다자간체제에서의 의사 未결정
 - 다자간체제의 경우 WMD 비확산을 그 임무로 하고 있기에 공급망 회복, 인권 탄압에 사용되는 기술 등에 대한 수출통제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며, 더욱이 바세나르체제(WA)의 경우 기본 지침 (initial element)에서 특정국을 타겟팅(direct)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대응 불가능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대러 수출통제에 관해 신속히 협력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임

1)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 사용자에 의해, 또는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2) 뉴질랜드의 경우, 현재 독자 제재 체제가 없어 「독자 제재법(Autonomous Sanctions Bill)」을 제정하고자 함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 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 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 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 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⑦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모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삼성 SDS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كل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안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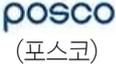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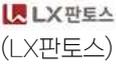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벌크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기업 벌크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더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포스코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 (www.steel-n.com) 사업안내 바로가기 ① 플랫폼 회원가입 ② 가입승인(포스코) ③ 합적 신청															
		<table border="1"> <thead>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head> <tbody> <tr> <td>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td> <td>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운임: 수출기업 부담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현대글로벌비스)	Breakbulk화물 수출 회원사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더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바로가기															
		<table border="1"> <thead>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head> <tbody> <tr> <td>광양항, 마산항, 평택항</td> <td>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td> </tr> </tbody> </table>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항공운송]																		
 (대한항공)	항공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포워더 신청불가) 가능 품목: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table border="1"> <thead>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body>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8~9월 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 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 단, TCR 노선은 40피트 컨테이너만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TCR</td> <td rowspan="2">인천/평택</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러시아 모스크바</td> </tr> <tr> <td>TSR</td> <td>부산</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모스크바 인근</td> </tr> </tbody>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모스크바 인근															
[물류 보관]																		
 (칼트로지스)	컨테이너 화물 물류센터 보관 희망 기업	[부산신항 물류센터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바로가기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서비스 내용</th> <th>여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td> <td>불포함</td> <td>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 </tr> <tr> <td>2</td> <td>물류센터 상하차</td> <td rowspan="2">포함</td> <td rowspan="2">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td> </tr> <tr> <td>3</td> <td>물류센터 보관</td> </tr> <tr> <td>4</td> <td>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해상화물) ☎ 02-6000-7617/5754 / logistics01@kita.or.kr
 (항공화물) ☎ 02-6000-5754 / hjo117@kita.net



GVC 소식통 ③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소식

● 한-콜롬비아 온실가스 감축 협력 세미나

- 콜롬비아 Expo Solar 전시회(180개사 전시, 24,500명 참관 규모) 참가하여 우리 기업 홍보부스 운영하고, 참가기업 중 희망시 웨비나 발표기회 및 잠재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지원
 - 일시/장소 : 9월 22일(목)~24일(토) / 콜롬비아 메데진 전시장(Plaza Mayor)
 - 신청기한 : 8월 31일(수) 限
 - 참가신청 : ([보고타 한-콜롬비아 온실가스 감축 협력 세미나\(클릭\)](#)) 내용 검토 후 1) 기업 영문 홍보자료(카탈로그, 동영상 등)를 보고타무역관으로 발송하고 2)웨비나 참가 여부 회신
 - ※ 웨비나 참가 시, 1개사 당 10분 내외 기업 소개(영어必) 시간 배정, 기업이 줌으로 사전 녹화 후 송부 필요
 - 참고사항 : 실물 홍보자료 발송 시 보고타무역관 주소는 참가신청 링크 참고 요망
 - 문의처 : KOTRA 보고타무역관 정석수 관장 ☎ 57-1-637-5099 / ssjung@kotra.or.kr
KOTRA 기후변화대응팀 장혜인 사원 ☎ 02-3460-7495 / jjang9@kotra.or.kr

● K-스마트팜 베트남 수출 지원사업

-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베트남 유망산업인 스마트팜 분야 우리기업 현지 진출 지원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
 - 일시/장소 : 10월 31일(월) / 베트남 호치민시 뉴월드 호텔
 - 신청기한 : 8월 31일(수) 限 ※ 신청기한 연장
 - 참가신청 : [K-스마트팜 베트남 수출 지원사업\(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참가 신청서 작성하고 제품 카탈로그, 기업 소개서를 압축한 뒤 함께 첨부하여 업로드
 - 참고사항 : 국내기업 15개사 모집 / 공항-호텔 이동 차량,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한·베 통역 지원
 - ※ 행사 당일 중식은 제공하나 그 외 출장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 정지영 대리 ☎ (+84)-28-3822-3944(133) / jjy92@kotra.or.kr

● 중국 선양국제농업박람회 연계 스마트팜 화상 수출상담회

- 중국 선양 스마트팜 박람회 현장에서 우리 스마트팜 기업을 대리하여 홍보하고,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 일시/장소 : 9월 23일(금)~26일(월) /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국제전시장 및 온라인
 - 신청기한 : 9월 2일(금) 限
 - 참가신청 : [중국 선양 국제농업박람회 연계 화상 상담회\(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시스템 상 신청 후 제품안내 브로셔 등 홍보자료, 홍보영상을 아래 문의처로 송부
 - ※ 유튜브 링크는 접속 불가하므로 파일로 송부 요망
 - 참고사항 : 국내기업 20개사 모집 / 홍보물 제공 기업에 한해 박람회 현장의 개별 홍보 공간 제공, 중국 바이어 대상, 제품 홍보 피칭 희망하는 기업과 전시회 현장 참가 가능 기업은 개별 연락 요망
 - 문의처 : KOTRA ICT융복합팀 박성우 과장 ☎ 02-3460-7467 / parksw@kotra.or.kr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8. 24. 수)

[환율]

	'20.12.31	'21.12.31	'22.7.31	'22.8.19	'22.8.22	'22.8.23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99.10	1,325.90	1,339.80	1,345.50	+0.43%	+13.18%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99.00	1,325.30	1,339.00	1,345.00	+0.45%	+13.03%
₩/CNY	166.04	186.51	193.35	193.81	196.06	196.11	+0.03%	+5.15%
₩/Y100	1,051.19	1,032.48	979.94	972.85	977.39	980.11	+0.28%	-5.07%
Y/U\$	103.34	115.14	132.57	136.29	137.08	137.28	+0.15%	+19.23%
U\$/EUR	1.2279	1.1318	1.0247	1.0084	1.0029	0.9914	-1.15%	-12.41%
CNY/U\$	6.5305	6.3681	6.7419	6.8033	6.8246	6.8629	+0.56%	+7.77%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8.22 (전일)	'22.8.23				
					전일(8.22)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3.97	96.54	▲2.6 +2.7%	▲46.5 +92.9%	▲19.4 +25.2%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00.65	102.30	▲1.6 +1.6%	▲15.0 +17.2%	▼18.5 -15.3%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041.00	8,110.50	▲69.5 +0.9%	▲355.0 +4.6%	▼1,581.5 -16.3%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387.50	2,438.50	▲51.0 +2.1%	▲487.0 +25.0%	▼367.5 -13.1%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1,810.00	21,780.00	▼30.0 -0.1%	▲5,873.0 +36.9%	▲855.0 +4.1%

[반도체]

	'20	'21	'22.5	'22.6	'22.7	8.18	8.19	8.22	8월(~22)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42	3.37	3.11	2.72	2.69	2.69	2.82
(YoY)	-21.9%	+8.0%	-23.6%	-25.4%	-31.6%	-35.4%	-35.7%	-34.6%	-32.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25	8.01	6.83	6.58	6.58	6.58	6.57
(YoY)	+7.0%	+32.8%	+33.7%	+23.0%	+1.4%	-4.0%	-3.8%	-3.8%	-4.2%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7.29	'22.8.5	'22.8.12	'22.8.19		
						전주(8.12)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3,887.85	3,739.72	3,562.67	3,429.83	-3.7%	-32.0%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7.29	'22.8.16	'22.8.17	'22.8.18	'22.8.19		
							전일(8.12)비	'21년말비
BDI	2,217	1,895	1,387	1,394	1,320	1,279	-3.1%	-42.3%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mGL3Obe>

협력기관

